

# 영암 농작업 사고 버스 차체결함 가능성

알타리(총각)무 수확 작업 인부들을 실어 나르다가 도로 옆 도랑으로 추락해 탑승자 8명이 숨진 사고 차량이 16년 된 중고 버스로 확인되면서 차체 결함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가 버스 엔진과 조향, 제동 장치 등을 분해해 차체 결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운전자 이모(72)씨를 부검해 조사할 예정이다.

차량 결함 가능성 제기는 경찰이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 등과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2차로를 달리던 미니버스가 1차로를 주행 중이던 SUV의 조수석 후시경을 충격하기 전에 미세한 흔들림이 관찰된 데 있다.

'보험개발원'이 유료로 제공하는 '중고차 사고 이력 서비스' 조회 결과 사고 차량은 지난 2002년 출시된 같은 해 6월12일 차적지를 광주로 처음 등록한 현대차 25인승 카운티 미니버스(자가용 승합차)로 확인됐다.

이후 2007년 11월, 2016년 11월, 2009년 1월, 2013년 12월, 2016년 4월, 2017년 3월까지 차량 소유자만 7번 바뀐 것으로 조회됐고, 숨진 운전자 이씨는 중고차로 이 버스를 구입해 그동안 농작업 인부들을 수송해왔다.

출고된 지 16년이나 지난 노후 버스에는 해당 기간 동안 차주가 바뀐 과정에서도 5건의 사고 이력도 확인됐다.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추가 사고 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을 일부 주민들은 "사고 버스가 지난 3월께 작업 인부를 태우고 돌아오던 길에 엔진룸에서 하얀 연기가 나더니 멈춰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차량이 노후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영업)용 버스의 경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차령)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 관리법상 공인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점검 검사를 받아야 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비사업용 승합차로 등록된 '사고 버스'에 사업용 버스 운행 내구연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6년을 더 운행한 셈이 된다. 이는 폐차 수준을 넘은 차량이라는 의미다.

## 2002년 등록 이후 소유자 7번 변경...사고 5번 영업용 버스 내구연한과 비교시 6년 연장 운행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체 결함'으로 규명될 경우 비사업용 승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버스가 출고된 지 16년이나 지난 것으로 봐서 차량 노후화가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동차검사 이력을 점검해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약 찹 싸기 체험하는 어린이들 3일 오전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에서 열린 제41회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약 찹 싸기 체험을 하고 있다.

## 검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씨 불구속기소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두환(87) 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조 신부도 이를 목격했음에도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시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표현했다.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씨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신부와 전 씨의 주장이 다른 만큼 검찰은 그동안 38년 전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왔다.

최근에는 전 씨가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며, 작성자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전 씨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오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 관련 형사 사건 수사공판기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해당 책자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고인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헬기사격 목격자(47명) 진술,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 인정),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점, 다수 목격자의 진술, 국과수 전일빌딩 감청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해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여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더 이상의 소환 조사 실익이 없는 점,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전 씨의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주춘정 기자

## 美 여객기, 또 비행중 창문 균열 발생

2주일 전 엔진 폭발로 창문이 부서지면서 여성 승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미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에서 2일(현지시간) 또다시 비행 중 창문에 균열이 생겨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시카고를 떠나 뉴저지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067편 여객기 승객들은 갑자기 '핑' 하는 큰 소리를 들었고 창문 한군데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보고 기겁했다. 불과 2주 전 사우스웨스트 항공 다른 여객기에서 창문이 파손되는 사고로 여성 승객 1명이 숨진 악몽같은 사고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여객기는 급히 항로를 변경해 인근 플리블랜드 공항에 무사히 비상착륙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균열이 발생한 창문 좌석으로부터 불과 2자리 건너 좌석에 탑승했던 폴업소(시카고 거주)는 "비행기 창문이 깨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2주 전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두려웠다"고 말했다.

사고기에는 모두 76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승무원들이 제발리 다른 창문들과 비상구를 점검했고 불안해 하는 승객들을 진정시켰다.

## 이라크 달리는 차에서 괴한이 8명 사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외곽 도시에서 1일 차를 타고 가던 무기 휴대 괴한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 최소한 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다고 2일 관리들이 말했다.

목격자들은 공격 괴한들이 이슬람국가(IS) 조직의 검은 깃발을 펼쳤다고 전했다.

두 경찰관에 따르면 사건은 1일 늦게 수도 북쪽 50km 지점의 타르미야시 상업지구에서 발생했다.

목격자들의 진언과는 달리 아직 공격 배후를 주장하는 세력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14년 5월 이라크 서북부를 전격 공략해 30% 넘는 영토를 장악했던 IS는 2017년 3월 북부 근거지 모술을 이라크군에게 뺏기면서 거의 소멸됐다.

시아파 주도의 이라크 정부는 12일 수니파 극단조직 IS 완전 퇴치를 선언했다. 그러나 12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IS 잔당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 공격이 잦아지고 있다.

## 美조지아주 주방위군 소속 C-130 화물기 추락

미국 조지아주 사베너-힐턴 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공군 주방위군 C-130 화물기 한 대가 추락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AP통신과 CBS뉴스에 따르면 체택카운티 비상관리국은 비행기가 2일(현지시간) 오전 11시30분에 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추락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 수송기는 푸에르토리코 주방위 공군 156비행단에 소속된 C-130 기종으로 9명이 타고 있었다. 비행기는 추락할 때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조지아 공군 주방위군 제프리 베조레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로 적어도 5명이 사망했다. 11시30분경 추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며 "탑승자들의 가까운 친척을 통보받는 대로 신원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베너 프로페셔널 소방관협회가 트위터로 찍은 사진에는 비행기의 꼬리 끝 부분과 구급차가 검은 흙이 피어있는 곳에 가까이에서 서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비행기는 사베너 공항의 북동쪽에 있는 크로스 게이트 도로에서 21번 도로의 교차로에서 추락했다.

도로는 폐쇄됐고 진로도 끊겼다.

에픽햄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제나 빌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락 사고에서 자동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절대적인 기적"이라며 "철도 신호가 충돌 지점의 일부였기 때문에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 리카르도 로셀로는 "조지아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로 인해 슬픔에 사로 잡힌다면서 "우리의 기도는 푸에르토리코 승무원 가족들과 함께한다"고 추모했다.

공항 측은 트위터를 통해 승객들이 최신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